


대한민국 문화관광주간

7

2006



KOREA

 문화관광부

10



42



46



56



contents

- 02** • 표지 이야기 꽃으로 생명을 이야기하다, 허상림
- 04** • 창간사 '한국 문화의 르네상스'를 꿈꾸어
- 06** • 창간축하 메시지 <울림> 창간을 축하합니다
- 10** • 기획특집 한국의 맛, 한류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안과 밖, 한식 들여다보기
- 20** • 이달의 상 '그들'의 문화가 아닌 '우리'의 문화 이주노동자 문화지원정책
- 24** • 문화 그리기 문화의 힘, 미래 한국을 바꾼다
- 28** • 도시 풍경 도시 미관의 첫걸음, 간판이 아름다워지면 도시는 꿈을 본다
- 32** • 함께하는 스포츠 운동과 함께하는 일상, 공공 생활체육시설
- 36** • 문화, 쇼보다 이제는 건강한 게임 세상, e-콜린 시대 나도 이제 '이트페이' 한다! 역사까지 말해주는 TV
- 42** • 사랑과 문화 열정과 믿음으로 그리는 꿈, 비움댄스컴퍼니
- 46** • 문화를 만드는 사람 김광근 장관의 '공포의 수첩'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엿다, 강남주 인음으로 함께 걷는 길 외
- 52** • 미리 보는 정책 세상 핵으로 어는 미래의 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56** • 우리랑 문화여행 미디어 콘텐츠의 천국, 부천
- 62** • 문화광장 서울을 찾아온 평양의 국보 외
- 64** • 울림 톨 '사랑의 헌혈행사' 참여 외
- 66** • 울림 Q&A 침해와 보호의 작은 간극, 저작권법
- 67** • 문화 캘린더

발행인 김광근
 발행처 문화관광부
 발행일 2006년 7월 15일
 등록번호 11-1370000-000157-06
 등록일 2006년 6월 8일
 전화 02-3704-9040 정책홍보팀
 팩스 02-3704-9049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woolim2010@yahoo.co.kr

기획·편집·디자인
 (주)인그라픽스 미디어사업부 www.ag.co.kr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60-68
 전화 02-763-2303
 팩스 02-745-8085

울림 2006년 7월호 No.1

‘그들’의 문화가
아닌
‘우리’의 문화

이주노동자 문화지원정책



이달의 창



20
•
21

july
2006



우리나라가 이주노동자에게 문을 연 지 1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40여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단일민족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이 이들에 대해 따스한 시선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해 참여하는 문화의 마당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있다. 한국 사회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이주노동자 문화지원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다.

글 | 심동훈(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그림 | 김성희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어 문화권의 대표작가 중 한 사람인 스위스 출신의 막스 프리시는 스위스의 이주노동자 유입 경험을 다음과 같은 반어로 요약하였다. “우리는 노동력을 원했으나, 인간이 왔다.” 그의 경구는 독일의 이주노동자 유입 결과를 설명

FOR MIGRANT WORKERS



하는 데도 자주 사용된다. "우리는 단지 노동자를 원했지만, 인간을 받아들였다."

이주노동자제도는 일정 기간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다. 이민자로 정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외국 인력을 받아들여야 하는 교체순환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간의 노동력을 단지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는 방식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예외 없이 생산기능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이러한 제도를 적용해왔다.

우리의 생산기능적 외국인력제도인 고용허가와 산업연수제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제도의 전형이다. 우리는 국내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다 이민자로서가 아니라 일정 기간 노동력만 제공한 후 되돌아갈 사람, 즉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를 노동력의 차원으로 접근하였으며, 한



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대한민국 국민은 아닐지라도 일정 기간 지위를 가지고 국내에서 거주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들의 대다수는 3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유엔의 기준으로 보면 이민자로 간주된다. 이주 노동자의 국내 거주는 그들 각자에게는 일시적인 것일 수 있으나,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 집단은 한국 사회의 한 부분을 영구적으로 구성하는 집단으로 존재한다. 그 결과 독일,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도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노동력 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화와 소통하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사실상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한다면,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노동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야 할 대상, 곧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사회통합은 유입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그 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포섭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통합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예컨대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은 경제적 통합, 의무교육 또는 고등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은 교육제도적 통합,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접근은 사회구조적 통합 등으로 세분하여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사회통합의 개념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며, 어떠한 국제협약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곧,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 권리'도 국가가 이주노동자를 '통합하여야 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사하게 국제인권법 어디에서도 국가의 이주노동자 동화 억제 정책이나 동화 촉진 정책을 규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은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나라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 여부와 방향을 선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단계에 접어들었음이 확실하다. 이주노동자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설정한다면, 그들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것만큼 그들의 권리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들의 문화적 충격을 완화하고 한국 사회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하며, 문화적 교감을 통하여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이주노동자의 문화적 권리 주장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이주노동자의 문화지원사업을 한국 사회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그들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총 19건의 사업에 18억 9,450만 원을 투입하였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이주노동자축제 개최, 이주노동자를 위한 문화가이드북 제작, 이주노동자를 위한 기념공연, 한국-인도네시아 친선교류의 날 행사, 이주노동자 한국어교육 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문화관광부는 한국에 살아도 한국 문화나 영화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와 가까워지고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도 지원하고 있다.

전 지구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뒤섞여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



다. 한국 사회의 문화를 중요하게 만드는 길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 문화정책은 이주노동자의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그들을 통한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견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이주노동자 문화지원정책은 현재 그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

관련정책 문의 | 국제문화협력과 김진권, 권성태 02-3704-9579



인터뷰

다민족에 대한 인식 좋아지길 부부 조시

네팔에서 온 청년 부부 조시 씨. 부부 씨는 한-네팔 친선협회의 총무를 맡고 있으며,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에게서 문화관광부의 이주노동자 문화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왔다. 글 | 현수정

네팔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한국에는 무슨 이유로 오게 됐는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살았는데, 대학생이었다. 한국에도 원래는 경영학 공부를 하러 왔지만 비자 문제 때문에 휴학 중이고, 현재는 무역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또 네팔 어를 가르치거나 통역하는 일도 한다. 한-네팔 친선협회를 만들었고, 현재 총무를 맡고 있다. 한국에는 네팔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한-네팔 친선협회가 대사관을 대신해 여러 행사에 참여한다.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이주노동자 문화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직접 참여한 적은 있는가?

많은 국제 행사에 참여했다. 지난 5월 열렸던 이주노동자축제에도 참여했는데 네팔 쪽 행사장을 지키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문화가이드 북도 보았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 잘 정리해놓았고, 버스 요금부터 지역별 장소에 대한 소개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어 실질적으로도 큰 도움이 됐다.

문화관광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고 있으며, 일요일에만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 있다. 사정이 괜찮아지고 월급도 어느 정도 오르는 했지만, 여전히 많이 힘든 게 사실이다. 이주노동자들을 일시적인 노동력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더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